

<붙임 3> 2026년도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위탁과제-모델 2 제안서

# 2026년 교양교육 혁신모델 시범사업

[모델2: 교양 연계 기초학문 기반 소단위 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모듈형]

2026. 0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 2026년 교양교육 혁신모델 시범사업

## [모델2 : 교양 연계 기초학문 기반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모듈형]

과제명	모델2 : 교양 연계 기초학문 기반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모듈형
<p>과제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학·시민교육)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인문학 수업 이중설강 확대 및 시민 교육 강화</li> <li>○ (균형 잡힌 AI 리터러시 교육) AI 기술 이해와 인문·사회학적 이해를 균형적으로 기를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li> <li>○ (기초 지식 보완 및 학업 능력 향상) 문·이과 통합교육 등으로 다양해진 입학생의 학업적 배경에 맞춰 기초 지식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전공 선택권 보장</li> <li>○ (전공 쏠림 완화 및 적성 탐색 경로 마련)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전공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적성 탐색 기회를 제공</li> <li>○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모듈* 운영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가능)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라 다전공 및 융합전공으로의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고 졸업 후 직업 변화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li> </ul> <p>※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모듈 :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최소학점을 모듈형으로 집중이수 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기존 학사과정의 경직성을 극복하고자 소단위 및 융합교육 운영을 통해 관련 역량을 키우도록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말함. 2023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제12조의2 (소단위 전공과정))으로 운영 근거가 마련됨</p>
<p>[모델 2] 대학의 지원조건 및 요구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 2]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초학문 전공/학과가 소멸 되었지만 해당 교수자가 일정 수 남아 있는 경우</li> <li>② 기초학문 전공/학과가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재학생 수가 줄어들어 전공 수업 폐강이 일상화된 경우</li> <li>③ 교양 담당 기관에 기초학문 전공 교수자가 일정 수 소속되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학문 전공: 문과(인문)대학의 어문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예술학전공 / 사회대학의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문화학, 심리학전공 / 이과(자연)대학의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전공</li> </ul> </li> </ul> </li> <li>○ [모델 2] 요구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양교육위원회 위원 중 1/2 이상이 교양 담당 기관 소속 교원, 외부 위원</li> </ul> </li> </ul>

과제명	모델2 : 교양 연계 기초학문 기반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모듈형
	<p>1~2인 포함, 위원장은 교양 담당 기관장, 기초학문 전공/학과장 참여를 원칙으로 함</p> <p>② 기초학문 전공/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교양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1년 주기로 재심의를 진행해야 함</p> <p>③ 이중설강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은 전공 학생과 타 전공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분반에서 수업 진행을 원칙으로 함</p> <p>④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모듈형 5~6개 설치  <b>※ AI 관련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모듈은 반드시 설계,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모듈형은 총 12~15학점 운영</b></p> <p>⑤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이수·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 및 지원체계 마련  예) 3개의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이수를 복수전공(자기설계전공)으로 인정, 폐강 조건 완화 등</p> <p>⑥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집중 컨설팅을 연 2회 이상 진행해야 함 (기본+심화 및 사후 모니터링 포함)</p> <p><b>∴ [모델 2]의 요구조건은 최종 선발된 대학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 가능함</b></p>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학·AI 등 수업 확대 및 내실화) 대학 기초교양교육에서 인문학, AI 수업 확대 및 시민교육 내실화</li> <li>○ 기초학문 전공 교육과정 및 교과목 유지</li> <li>○ 대학에서 기초학문의 토대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방지</li> <li>○ 기초학문 소멸 및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기초학문 제공</li> <li>○ 학제간 융합 교육을 통한 종합적이고 유연한 사고 증진</li> <li>○ 교양 교과목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li> </ul>
사업비 및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 110,000,000원</li> <li>○ 기 간 : 2026년 3월 ~ 12월 (1차년도)  <b>※ 심의·자문위원회의 연차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3개년 지원 예정</b></li> </ul>

**별첨 1** | 교양 연계 기초학문 기반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모듈 (예시)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 모듈	교양교과목	기초학문 전공 교과목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기술학	물리학, 환경학, 과학사, 생명과학
다양성의 사회학	사회학	젠더 사회학, 불평등의 사회학, 젠더와 노동
21세기 K-culture	한국 현대문학, 미학, 사회학	한국 현대사, 경제학
기후위기와 인간 삶	철학, 사회학, 문학, 데이터 분석	경제학, 환경학
지속가능성과 환경	문학, 철학, 역사, 문화학	생태학, 환경사, 경제학
전쟁 : 서사와 성찰	문학, 예술학	역사학, 철학, 사회언어학
생성형 AI 프롬프트 전문가	글쓰기, 철학	사회학,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학과

**별첨 2** | 교양 교육과정에서 AX 교과목 개발 (예시)

분류	교과목 명(안)	내용(안)
<b>도구로서 AI</b> (기초문해 교과목의 수업 내용에 AI를 도구로 활용)	글쓰기 + AI	아이디어 발상-구성-표현 다듬기를 AI와 상호작용하며 순환적으로 진행해 설득력·명료성·개성적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근거 제시와 인용을 작업 흐름 속에 통합하는 교과목
	외국어 + AI	AI를 활용하여 실제적 상황 과제를 중심으로 읽기·듣기·말하기·쓰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맥락에 맞는 어휘·표현·발화 감각을 반복 연습 속에서 체득하는 교과목
	컴퓨팅 사고 + AI	문제 상황을 함께 모델링하고 예시 해법을 실험·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분해·추상화·절차화를 체득하고, 해결 전략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교과목
	AI와 함께 생각하는 법	AI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결과에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AI 알고리즘에 갇힐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의적 활용(How to creatively us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현재 사회는 디지털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적 역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창의적

분류	교과목 명(안)	내용(안)
		인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글쓰기, 보고서 만들기, 전자책) 제작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 결과물을 얻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주제로서 AI (자유학예 세부 영역에 각각 2~3개의 교과목 개선 및 신설)	AI 시대의 개인과공동체(AI는 공동체의 적인가?)	개인 권리와 공동체 책임이 AI와 함께 재조정되는 양상을 성찰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방향을 모색하는 교과목
	AI에 대한 철학적 접근	지식·판단·자율성·도구성 같은 핵심 개념을 통해 AI의 의미와 한계를 탐구하며 사유의 틀을 확장하는 교과목
	AI 시대의 algocracy	알고리즘이 중개하는 규칙·판단이 일상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공정성·책임성·설명가능성의 원칙을 토론하는 교과목
	컴퓨팅과 수리적 사고	논리·확률·통계·모형화 관점으로 문제를 구조화하고, 정량·정성 판단을 통합하는 사고를 기르는 교과목
	AI와 데이터 사회	데이터의 생성·수집·분석이 이루어지는 기본 흐름과 AI의 개입 방식을 큰 그림에서 살펴보고, 개인정보·공정성·책임성과 같은 기초 쟁점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개론 교과목
	AI와 예술	창작·제작·감상의 흐름에 AI가 함께할 때 열리는 새 표현 가능성과 저작·진정성 논의를 함께 탐색하는 교과목
	AI와 디지털 휴먼	가상 인물·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이 정체성·관계·노동에 주는 변화를 사례로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기준을 논의하는 교과목
	AI와 생명윤리	의료·돌봄·연구 현장에서 AI가 함께 쓰일 때 생명존중·안전·책임의 기준을 균형 있게 검토하는 교과목
	AI 시대 인간의 정체성	지능·감정·창의성·몸의 의미를 다시 묻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탐구하는 교과목
	AI 시대의 인문고전	AI 시대에 고전을 어떻게 읽고 재해석할지를 탐구하며, 전통적 독해·토론을 AI와의 상호작용적 탐구와 자연스럽게 결합해 고전의 통찰을 오늘의 쟁점으로 재맥락화하는 교과목
AI 시대 윤리학과 사회학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윤리적 문제 즉,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 프라이버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분류	교과목 명(안)	내용(안)
	AI 시대의 철학적 고찰	인공지능의 본질, 의식, 지능 등의 질문을 통해 인간과 AI의 관계 성찰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사람과 닮은 기계의 등장 맥락을 통해 상호작용·역할·권리·안전 등 사회적 합의의 방향을 토론하는 교과목
	인공지능과 인간의 마음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 Mind)	인간의 뇌와 마음의 문제를 탐구하는 인지과학에 대한 고찰과 인간 지능의 본질과 원리에 근거하여 개발이 지속되어 온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 학습을 역사적으로 전개한다. 나아가 다양한 주제 가운데 인지처리 및 언어 학습, 이해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증진한다. 특히 인간의 사고와 기계적 사고의 유사점, 차이점, 상호보완점에 대한 통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다 나은 세계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한다.
	디지털 기술 시대 인간가치에 대한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 (Literary Sensitivity and Imagination about Human Values in the Digital Technology Era)	문학을 통해 디지털 기술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인간의 존재와 가치 및 기술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이 갖추어야 할 삶의 규범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 교과목의 목표가 있다. 디지털 사회가 심화될수록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사회 속 인간의 고통·소외, 비인간과의 공존 등 이전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 가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숙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윤리와 다양성, 평등, 포용 (AI Ethics and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이 교과목은 디지털 정보사회와 AI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다양성, 평등 및 포용의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하는 데 목표가 있다. AI가 발전할수록 왜곡, 편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AI 점유를 둘러싼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미래사회에서 다양성, 평등, 포용의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커다란 화두가 될 수 있다. 이 교과목은 AI,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의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 원칙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및 저작권 등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학습하려는 것이다.
AI에 대한 이해 (AI 자체에 대한	AI 윤리	AI 활용 전반에서 제기되는 안전, 공정성, 책임, 프라이버시 등 기본 원칙과 사고틀을 사례와 함께 개괄적으로 배우는 과목

분류	교과목 명(안)	내용(안)
이해 교과목 1~2개 신설)	인공지능 윤리와 로봇 윤리	소프트웨어형 AI와 물리적 로봇의 특성을 비교하며 자율성, 안전, 인간-기계 관계의 주요 쟁점을 폭넓게 살펴보는 과목
	AI 시대의 정보통신공학의 쟁점 - AI 윤리와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생성·전송·저장·활용되는 기본 구조를 개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와 윤리 이슈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과목
	AI 알고리즘	대표적 문제 유형(분류, 예측, 추천 등)과 알고리즘적 사고의 기초 원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과목
	인공지능 원리 이해(Fundamental 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신경세포를 모델링한 퍼셉트론(perceptron)으로부터 현대의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에 이르는 인공지능의 종류와 활용 분야에 대한 기초학습을 진행한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학습을 한 후 미지의 데이터를 인지하는 원리를 이론과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인공지능 자체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해봄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삶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인공지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목표를 둔다.
	인공지능 개론	AI의 역사, 주요 분야(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 그리고 다양한 AI 모델의 원리를 개괄적으로 배우는 과목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산업·노동·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시나리오로 폭넓게 탐색하고, 기회·위험·준비 과제를 균형 있게 정리하는 과목
	인공지능의 철학	'지능·의식·자율성' 같은 핵심 개념의 철학적 전통과 현대 논의를 개관하며, 인간과 기계에 대한 이해의 틀을 확장하는 개론 과목